

‘김봉현 옥중 폭로’ 국감 대격돌 예고

오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라임·옵티머스 ‘뜨거운 감자’여, 야권 연루·로비 검사 추궁...야, 여권 인사 개입설 공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파문이 커지면서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고검 산하에는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각가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포함돼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도 감사 대상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옵티머스·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불꽃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민정비서실 수사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폭로한 야권 인사 로비와 검사 접대 의혹을 공세 포인트로 삼아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로비했다고 폭로하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수사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혐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참가했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을 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 대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검찰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에 대해선 야당의 ‘봐주기 수사’ 비판에 여당이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총리 “코로나 취약시설 방역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11명 ‘선거법 위반’ 무더기 재판행

4명 이상 당선무효형 확정시 개헌 저지선 붕괴...정국 새 변수 부상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범죄, 선거폭력·병해사범은 증가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

법위반 1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같은 당 김경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각각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10%를 웃도는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됐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격차 커”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및 교육투자액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가장 많았고 광주는 평균 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2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75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울산은 가장 적은 29만 8000원에 불과해 4년 연속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남과는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광주는 33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아동학대, 빠른 분리 등 핀셋 관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8일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빠른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 및 피해 아동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27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폭등했고,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5배가량 증

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얼마전 16개월짜리 아동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3년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반복적인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의 경우 전문 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필요시 곧바로 분리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빈 “은행 배만 불리는 연구비관리시스템 정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8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해 오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통합이지바르’(Ezbar)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사업비 6조4000억원을 예치할 전담 은행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초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던 156억원의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를 국

고에 납입해야 할 이자도 상당했고, 과기부와 연구재단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막대한 국비를 예치시키면서 사실상 이자율은 턱없이 낮게 결정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사립비도 할인해주며 은행들 배만 불러준 셈이다”며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서울대 같은 직종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차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18일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받는 경우도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도 사정은 비슷했다. 비정규직 고용과정에서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지 않아서 서울대 내부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은 단순히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음에도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사실상 간접고용제도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신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안과 1566-9988